



www.akht.or.kr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Studies

The Academy of Korea Hospitality & Tourism



대학생의 기업가적 역량, 창업의지 및 취업의지에 대한 창업교육의 역할: 호텔관광전공자 창업교육집단과 비창업교육집단

The role of tourism entrepreneurial education on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ial competency, intention to start a business and intention to get a job

김남현*

Kim, Namhyun

* 동국대학교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부교수, nkim@dongguk.ac.kr, 관심분야: 관광개발, 관광역신, 관광기업가정신

요약

본 연구는 호텔관광분야의 창업교육이 전공학생들의 기업가적 역량과 창업의지, 취업의지를 향상시키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창업교육을 받은 집단과 비창업교육 집단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관광 기업가적 역량, 창업의지, 취업의지의 차이를 밝히고, 기업가적 역량이 창업의지와 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와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2017년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 까지 호텔관광경영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최종 301부의 유효 표본을 확보해 신뢰성, 타당성 분석 및 독립표본 t검정, 회귀분석 등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가설을 검정하였다. 연구결과 기업가적 역량은 인지적 역량, 사업화 역량, 기회포착 역량, 협상 및 전략 역량, 대인관계 역량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업화 역량은 창업교육집단이 비창업교육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의지는 창업교육을 받은 집단이 비창업교육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의지 역시 창업교육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적 역량 중 인지적 역량, 기회포착 역량, 대인관계 역량이 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창업교육이 조절효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창업교육의 조절효과와 기업가적 역량이 창업 및 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함으로써 호텔관광분야의 창업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핵심용어

관광 창업교육,
기업가적 역량,
창업의지,
취업의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ole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in the hotel and tourism field in improving the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employment intention (intention to get a job) among hotel and tourism major students. Specifically, the study tries to reveal the difference in tourism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employment intention between two groups: one that received entrepreneurial education (EE) and the counterpart that not received (NEE).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employment will,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were also examined. Data were collected from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hotel and tourism management in December 2017, and a total of 301 samples were analyzed using independent t-test, regression analysis, and Z-test. The findings suggest that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consisted of cognitive competencies, business competencies, opportunity competencies, negotiation and strategy competencies, and human relations competencies. The business competencies was found to be higher in the EE group than in the NEE group. The EE group showed higher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employment intention than the NEE group. It was found that entrepreneurial education had a moderate effect on the relationship of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and employment intent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identifying the importance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the impact of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on entrepreneurial and employment intention in the hotel and tourism field.

KEYWORDS

tourism entrepreneurial
education,
entrepreneurial competency,
entrepreneurial intention,
employment intention

ACCEPTANCE INFO.

2021.02.10. 원고 접수
2021.02.20. 1차 수정본 접수
2021.02.25. 2차 수정본 접수
2021.02.27. 최종 수정본 접수
2021.02.27. 최종 게재 확정
3인 익명심사필

I. 서론

한국 사회가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고, 취업기회가 축소됨에 따라 오늘날 청년실업 문제는 개인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등장하였기에 대학, 행정, 교육계 모두의 관심사항이 되었다. 만약 청년실업 문제, 특히 대학생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청년들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년일자리 문제 심화 등이 큰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고혁진, 2015).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한국의 청년고용률은 2013년에 최저 수준인 39.5%에서 2019년 43.5%로 증가하고 있으나 평균 41.2%수준이며, 2018년 기준 대졸자 평균 취업률은 67.7% 수준으로 최근 다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20). 하지만 계열별 취업률을 볼 때 호텔관광경영전공과 같이 사회계열은 64.2% 수준으로 평균을 밑돌고 있으며, 그나마도 파트 타임과 임시직 등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취업의 질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교육부, 2019).

이런 시점에서 창업은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일자리 부족과 이로 인한 청년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14). 창업분야는 부가가치가 높고 혁신적인 분야에서 청년일자리 창출함으로써 미래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으로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창업진흥원, 2016). 그러나 대학생들은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만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등 대체로 창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박동 등, 2013). 대학에서도 창업교육(entrepreneurial education)이 확대되고 있지만, 양적인 확대보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질 높은 교육이 필요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대학생들의 창업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부터 적극적인 창업교육과 훈련을 통해 창업의 두려움을 없애고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의 창업교육은 창업을 하려는 학생이 사업가가 되는데 필요한 자질과 지식, 기능, 태도 등을 습득하여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갖추어 자기가 맡은 모든 업무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박윤희, 2003).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창업교육의 목표는 첫째, 창업정신과 도전정신으로 무장된 창의적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둘째, 준비된 창업인재가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대학 내에 마련하며, 셋째, 창업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행복한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다. 따라서 대학의 창업교육은 진로탐색의 과정이며 진로교육의 한 분야로 인식되므로 창업교육의 교과내용, 창업교과목 체계, 교과내용 및 교수법 등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창업교육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교육 이외 다양한 비교과(창업동아리, 취·창업 자격증 등) 활동을 통해 창업을 시작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적성, 태도, 가치관 등을 가르쳐 주는 교육이라고 정의해 왔다(정태화, 1996). 하지만 최근에는 창업에 대한 중요성과 시의성에 따라 다양한 전공에서 전공교육과정 내에 창업교과목을 적극적으로 개설하고 창업동아리 운영지원, 창업경진대회, 창업캠프 등을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별도의 창업교육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9년 기준 전국 대학의 창업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교양과목으로 개설한 강좌 수가 4,937개로 2017년 대비 55%가 증가하였으며, 전공과목 개설 강좌는 3,269개로 2017년 대비 14%가 증가되었다(대학알리미, 2018, 2020). 이외에도 전국 대학에서 창업동아리 4,746개, 창업경진대회 및 창업캠프 개최 건수가 1,151건으로 대학생들의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대학알리미, 2020).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2016)의 대학창업교육 실태분석에 따르면, 대학에서 창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청년 비율이 64.6%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청년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또한 창업희망자 10명 중 3명(29.0%)은 IT·전자 등 기술창업에 관심이 있으며, 요식업·숙박업, 쇼핑몰 등 관광과 관련된 서비스유통업이 뒤를 잇고 있다. 특히, 문화관광콘텐츠 분야는 14.7%를 차지해 관광분야의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전공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또한 창업교육이 모든 전공학생들에게 적용될 때 학생들은 졸업 후 실제적으로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고용주의 입장에서 사업경영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여 사업체 내의 노사갈등 완화에도 큰 몫을 담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교육프로그램보다 그 효과는 높을 것이다(정태화, 1996).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 호텔관광전공에서 창업교육은 여전히 한두 개의 교과목 개설에 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호텔관광경영학과가 있는 대학이 재학생들을 청년창업가 또는 잠재적 창업가로 육성하기 위하여 학과의 정규교육과정 및 비교과과정 내 창업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학생들의 진로의 폭을 넓혀주는 것은 중요하며, 또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창업교육들이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태도와

역량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의 창업교육이 실질적인 재학생들의 창업의지(entrepreneurial intention)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실증연구들을 진행했으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모두 확인되어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한 실정이다(김남현·최옥희, 2019; 최옥희 등, 2017; Garavan & O' Cinneide, 1994; Oosterbeek et al., 2010; von Graevenitz et al., 2010).

대학생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혹은 개인의 생계유지 및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등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며, 대학 교육이 취업의지(employment intention)와 창업의지를 강화시켜 학생들이 적극적인 취·창업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교육이 중요한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창업교육이 단순히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의 진로인 창업과 취업 모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창업의지에만 초점을 두고 연구(김용태, 2017; 노인균 등, 2016; 이재석·이상명, 2015)가 이루어졌고 호텔관광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창업교육과 취업의지를 고민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호텔관광분야 전공 학생들의 기업가적 역량(entrepreneurial competency)이 창업교육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창업의지나 취업의지를 더 고취시키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창업교육 집단별 비교분석을 통해 기업가적 역량, 창업의지 및 취업의지에 있어 창업교과목 수강 및 창업 비교과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등 창업교육을 받은 집단과 비창업교육 집단 간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며, 둘째, 각 집단별 기업가적 역량이 창업의지와 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호텔관광경영학전공의 대학교육에 있어 기업가적 역량을 고취시키는 창업관련 교육이 창업에 관심이 있고 창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도 의미 있는 커리큘럼이 됨을 확인하여 호텔관광분야의 창업교육이 중요함을 제안하고 대학교육에서 호텔관광전공 창업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대학의 창업교육

대학의 창업교육은 정규교과운영과 비교과 창업활동 지원, 창업교육 전담조직 운영,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등으로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대학의 창업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창업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19년 기준 교양과목으로 개설한 강좌 수가 4,937개로 2017년 대비 55% 증가하였으며, 전공과목 내 창업교과목 개설 강좌는 3,269개로 2017년 대비14%가 증가되었다(대학알리미, 2018, 2020). 이외에도 전국 대학에서 창업동아리 4,746개, 창업경진대회 및 창업캠프 개최 건수가 1,151건으로 대학생들의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대학알리미, 2020). 전공분야별 창업교육의 현황은 파악된 공식자료가 없어 호텔관광전공에서의 창업교육 실태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국내 창업지원이 대부분 기술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호텔관광분야에서의 창업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지 의문이며, 이에 대한 현황파악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6년 동국대가 관광창업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대학특성화사업에 선정되어 창업교육을 정규교과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하였고(헤럴드경제, 2016. 09. 07), 대다수 호텔관광경영 혹은 외식경영전공 교육을 하고 있는 대학에서 전체 커리큘럼 중 많아야 1~2개 창업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수준이다. 최근 세종대학교가 배달의 민족과 산학협약을 체결하고 외식분야 창업교육을 시작하였으나 재학생의 창업육성교육이라기 보다는 세종대학교의 교육모델을 바탕으로 식당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형태이며(교수신문, 2020. 02. 27), 전주기전대학이 전주다운 문화관광형 창업 선도사업으로 창업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이 역시 전주시 내 청년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대학 내 정규 창업교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어떻게 창업가가 되는가?’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두 갈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창업가는 기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창업가적 특성(창업성향)이 창업의지와 창업실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바라보는 관점(이정원 등, 2013; 최중석·성상현, 2015; Diaz-Garcia & Jimenez-Moreno, 2010; Gartner, 1989)과 창업교육 등을 통해 기업가적 역량이 길러지고 이것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김남현·최옥희, 2019; 최옥희 등, 2017; Küttim et al., 2014; Liñán et al., 2011; Maresch et al., 2016)이다. 후자의 관점에 따라 대학에서도 최근 창업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정부에서도 창업 육성을 위한 많은 교육들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교육은 참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물론 도전의식을 강조하여 미래에 창업가가 될 수 있는

희망을 제공하고, 이 같은 희망을 현실화시켜 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이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좁은 의미에서 창업교육은 사업을 계획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적성, 태도 등을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창업교육은 예비 창업자들에게 창업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창업능력 및 기업가정신을 고취시켜 창업성공률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박윤희, 2003). 또한 넓은 의미에서의 창업교육은 실제로 사업을 준비하거나 운영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미래에 잠재적 창업자들에게 사업경영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구지은, 2013). 기존의 취업 교육이 주로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피고용자 교육을 강조하였다면, 창업교육은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기업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꿈과 희망을 불어넣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이라는 특성이 있다.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들(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의 역할이 중요한 관광산업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관광전공의 대학교육에서 창업교육을 통한 기업가적 역량 및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Daniel et al, 2017). 하지만 국내 대학교 내 호텔관광전공에서 창업교육은 그리 활발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창업교육 및 창업에 대한 연구도 아직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소규모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은 외식 혹은 조리 분야의 연구들(강재희 · 강진희, 2013; 배혜숙 등, 2012; 이인숙·나영아, 2014)은 다소 진행되고 있으며, 호텔관광전공을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는 호텔관광경영전공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이 창업성향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조절효과(최옥희 등, 2017), 창업의도모형에서 관광창업교육의 조절효과(김남현 · 최옥희, 2019), 문화관광 창업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친 영향(최명길 · 박은주, 2012), 관광분야 창업교육이 기업가정신과 취업역량에 미치는 영향(최주철, 2018) 등이 있다. 이인숙·나영아(2014)는 조리외식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내 외식창업 지원요인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에 긍정적 요인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대학생들에게 창업관련 교육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김남현 · 최옥희(2019)는 창업의도모형에서 지각된 행동통제와 창업의도의 관계에 있어 창업교육이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최옥희 등(2017)은 창업성향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내적통제성향, 우연에 의한 통제성향, 혁신성에 있어 창업교육이 조절효과를 미침을 밝혔다.

국외연구로는 대학생의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여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한 연구들이 있으며(Chang, 2000; Galloway & Brown, 2002; Maresch et al, 2016), 반면, 창업교육이 선행요인들과 창업의도와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한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들이 있다(Entrialgo & Iglesias, 2016; Liñán et al., 2011; Soliman, 2011).

2. 기업가적 역량

창업가 혹은 기업가가 되기 위한 요인으로 지금까지 개인의 선천적인 자질이나 특성이 중요함을 많은 연구에서 밝혀왔다(이정원 등, 2013). 최근에는 창업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창업교육이 증가함에 따라 창업역량이나 창업가적인 기질도 교육을 통해 후천적으로 형성되고 길러질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 보다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김남현·최옥희, 2019; Bird, 1995; Garavan & O'Cinneide, 1994; Gibb, 2002). 따라서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창업관련 교육을 통해 잠재 창업가 혹은 예비창업가, 창업가들의 역량이 높아지거나 창업의 성과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다(김기홍·김용태, 2014; 박동 등, 2013; Sánchez, 2013).

기업가적 역량은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지식, 동기, 특성, 자기 이미지, 사회적 역할 및 기술들과 같은 개인의 특성(Bird, 1995), 혹은 기업가가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총체적 능력(Man et al., 2008)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Mitchelmore & Rowley(2010)는 특히 SMEs의 기업가적 역량을 기업운영에 있어 기업가와 그의 협력자가 비즈니스 목적을 위해 자원을 성공적으로 획득하고 활용 및 개발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기업가적 역량 프레임워크(entrepreneurial competency framework)를 제안하며 기업가적 역량은 개인의 특성으로 이루어진 요소들뿐만 아니라 훈련이나 교육으로 얻어질 수 있는 요소(지식, 경험, 기술 등)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업가적 역량 프레임워크는 기업가적 역량, 비즈니스와 경영 역량, 인적자원 역량, 개념적 및 관계적 역량으로 구성됨을 제안하였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기업가적 역량이 측정가능하며 학습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가적 역량의 구성요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으며, 현재까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Pesha et al., 2021). 기업가적 역량을 개인의 특성으로 간주하고 자기효능감, 능동성, 위험감수성 등의 요인으로 측정한 연구(Sánchez, 2011, 2013)도 있지만, 앞에서 내린 기업가적 역량의 정의에 따라 개인 특성요소와 함께 경영 기술 등의 요소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척도를 사용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Man et al.(2008)은 기회역량, 관계역량, 분석적 역량, 혁신적 역량 등으로 기업가적 역량을 측정하였으며, Chandler & Jansen(1992)은 인적/개념적 역량, 기회 포착 능력, 모험적 벤처기질, 기술역량, 정치적 역량으로 측정하였다. 김용태(2015)는 기업가정신 측정지표를 개발하면서 기업가적 특성과 기업가적 스킬을 구분하였으며, 기업가적 스킬을 기업가적 역량과 같은 개념으로 간주하고 인지 역량, 대인관계 역량, 사업화 역량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청년들의 SMEs 창업의지에 대한 기업가적 역량 모델을 제안한 Ataei et al.(2020)은 전략적 역량, 의사소통 역량, 심리적 역량, 기회포착 역량, 조직적 역량으로 구성하였으며, 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기업가적 역량을 연구한 Ibidunni et al.(2021)은 조직 역량, 개념적 역량, 학습 역량, 위험감수 역량, 전략적 역량, 관계 역량, 기회 역량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3. 창업의지 및 취업의지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려고하는 의지가 필요하며, 창업의지 혹은 창업의도가 창업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동기가 된다. Krueger et al.(2000)은 창업의지를 개인의 심리적인 상태로 봤으며 창업활동을 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으로 정의하였고, Crant(1996)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창업을 할 가능성이라고 보기도 하였다. 한편, 김홍(2012)은 창업의지를 창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선행되는 태도로 보는 관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창업의지에 대한 연구는 이미 창업을 한 기업가 혹은 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의 성공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Chandler & Jansen, 1992; Gurel et al., 2010)와 아직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가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요인들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김용태, 2017; 최옥희 등, 2017; Autio et al., 1997; Lent et al., 1994)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이론적 근거는 주로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기반으로 창업을 고려하는 요인들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주로 심리적 특성, 창업성향, 개인적 환경(즉 배경특성)이 주요 요인임을 밝혀왔다. 최근에는 대학생 혹은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교육이 창업의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김남현·최옥희, 2019; 김용태, 2017; 노인균 등, 2016)도 진행되었으나 호텔관광분야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취업은 대학생들에게 있어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속됨과 동시에 개인의 생계유지 및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수단이다. 취업의지는 개인이 일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 혹은 관심을 가지는 인식 정도(Van Dongen, 1996)라고 할 수 있으며, 미래에 자신이 취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에 관한 개인의 평가(이상호, 2016)이다. 취업의지는 취업에 대한 자신감과 취업을 선택하는 행동의 선행요인으로 특히 대학생들의 취업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상호(2016)는 취업의지의 결정요인을 찾기 위해 역량강화교육, 학교생활만족도, 직업이해 등을 제시하였고, 반태현(2016)은 교육성과와 전공몰입이 취업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나타냄을 밝혔다. 반면, 창업교육과 관련한 취업의지 연구로는 안태욱·강태원(2017)이 창업가 역량이 기업가정신을 통해 취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여 취업의지가 창업개념과도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III. 연구방법

1. 가설설정

1) 창업교육에 따른 기업가적 역량의 차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즉, 잠재 창업가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전주현·임경수(2017)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기술창업교육캠프를 통해 창업교육을 받기 전과 창업교육을 받은 후의 기업가적 역량의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창업기회를 인식하는 역량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최주철(2018)은 창업교육이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Sánchez(2013)은 관광교육에서 기업가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창업교육(기업가정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을 통해 실제 현장 사례에 대한 문제해결 교육을 실시하여 참여한 학생들이 기업가적 역량에 향상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체계적인 창업교육이 기업가적 역량을 갖추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창업교육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이 기업가적 역량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창업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기업가적 역량이 높을 것이다.

2) 창업교육에 따른 창업의지 및 취업의지의 차이

창업교육은 예비 창업자 혹은 잠재 창업자가 사업을 계획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 역량, 태도 등을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재석·이상명, 2015). 이는 창업가 혹은 기업가가 교육을 통해 후천적으로 육성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창업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대학교의 창업교육, 기업가정신교육 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Gibb, 2002). 글로벌 앙트러프러니십 모니터(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에서 매년 국가의 창업생태계(entrepreneurship ecosystem)를 조사하고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로 창업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 척도에서는 창업교육은 대학교 등 정규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단계와 졸업 후 창업을 준비하고 스타트업들을 위해 시행하는 창업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내 창업교육의 현실을 보면 실질적으로 대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창업교육보다는 졸업 후 단계의 창업교육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GERA, 2017). 창업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아직은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Garavan & O' Cinneide(1994)의 연구에서는 창업교육과 벤처창업 사이에 정(+)의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Crant(1996)의 연구에서도 창업의지와 창업교육의 수준이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창업교육의 수준이 높을수록 창업의지가 높아졌음을 밝혔다. 김기홍·김용태(2014)의 연구에 따르면 창업 멘토링 교육의 다양한 요인들이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의 창업의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줌을 밝혔다. 김용태(2017)의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이 직접적으로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균 등(2016)의 연구에서도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2. 창업교육을 받은 학생이 창업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에 비해 창업의지가 높을 것이다.

대학 내에서의 창업교육은 순수하게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잠재창업가 혹은 기업가만을 위한 교육보다는 기업가적 역량과 보다 진취적이고 주도적인 태도를 가진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의의까지도 높여줄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다. 창업교육이 직접적으로 취업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창업교육을 통해 길러질 수 있는 창업가 역량, 혹은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가 아닌 취업의지 혹은 취업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밝혀졌다(최주철, 2018).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이 취업의지에도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3. 창업교육을 받은 학생이 창업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에 비해 취업의지가 높을 것이다.

3) 창업교육에 따른 기업가적 역량이 창업의지 및 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

대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는 취업 혹은 창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지가 창업교육을 통해 기업가적 역량이 형성되고 기업가적 역량이 창업의지나 취업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Sánchez(2013)는 창업교육이 기업가적 역량과 창업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밝혔으며, 이인숙 등(2013)은 조리외식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역량과 창업의도간의 관계를 연구하여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안태욱·강태원(2017)의 연구에서는 창업가 역량인 협업적 의사소통능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들의 취업의지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창업가 역량 자체가 취업의지에 직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지는 못했으나 기업가정신을 매개로 취업의지를 높여준 것을 확인하였다. 최주철(2018)은 관광분야 창업교육을 통해 길러진 기업가정신이 취업역량을 높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이 기업가적 역량과 창업의지, 기업가적 역량과 취업의지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할 것으로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4. 기업가적 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두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 기업가적 역량이 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두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호텔관광분야에서 대학의 창업교육이 학생들의 기업가적 역량, 기업가적 태도, 창업의지뿐만 아니라 취업의지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호텔관광경영을 전공으로 두고 있는 대학 중 관광창업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체계적인 설계와 교과목 및 비교과를 운영하고 있는 D대학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D대학교는 정부 재정지원사업(CK-1)에서 “관광창업 인재양성 사업단”으로 선정되어, 관광분야 창업 교육에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대부분의 대학이 창업관련 교과목을 정규교과목 중 1~2 과목 정도로 소수의 교과목을 두는 것과 달리, D대학교의 경우 별도의 창업 교과목을 추가 개설하고 2학년에서 4학년까지 관광창업, 관광창업 마케팅, 스마트관광 창업기획, 관광창업 캡스톤디자인 등 전 학년에 걸쳐 창업과 관련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교과과정에서도 학과 자체 관광창업 아이디어공모전 등을 주관하고 학교 내 창업과 관련된 비교과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D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의 창업교육은 기존 이론이나 문헌교육 중심의 창업학에서 탈피하여 실행중심, 행동중심 그리고 성과지향적인 교육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호텔관광경영학부의 창업교육은 다양한 분야에서 관광창업가의 ‘경영전략’ 및 ‘마케팅 전략’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기업가정신, 창업아이템의 선정과 평가, 창업기획과 준비 등에 창업교육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타 대학보다 창업에 대한 교육의 적극적 도입과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창업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하는데 적합한 연구대상이라 판단된다.

3. 측정항목 도출

기업가적 역량은 개인이 기업가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물질적 혹은 비물질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Danneels, 2002; Mitchelmore & Rowley, 2013). 인지역량, 대인관계역량, 사업화역량으로 구분한 김용태(2015)의 측정항목과 Chandler & Jansen(1992), Man et al.(2008), Mitchelmore & Rowley(2013)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최종 2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창업의지는 학생들이 향후 창업을 하고자하는 의도로 정의하였으며, 최옥희 등(2017)과 김용태(2017)에서 검증된 설문문항을 바탕으로 총 4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창업교육은 창업교육이 실질적인 벤처창업과 정(+)의 관계에 있다는 Garavan & O’Cinneide(1994)과 이재석·이상명(2015)의 연구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창업교과목 수강여부와 창업비교과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예’ 또는 ‘아니오’의 이분화 된 척도로 측정하였다. 취업의지는 창업보다는 취업으로 진로를 선택하고자하는 의도로 교육과 취업의지와의 관계를 연구한 반대현(2016)과 이상호(2016)의 설문항목을 참고하여 총 4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그 외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공, 학년, 창업에 대한 관심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3개 항목을 측정하였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창업교육이 기업가적 태도, 기업가적 역량, 창업의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D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재학생 750여명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일주일간 호텔관광경영학부 전공 수업을 듣고 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모집단을 대상으로 신뢰수준 95%, 오차확률 5%를 기준으로 할 때 적정 표본 수는 255명으로 이를 충분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총 400부를 배포하였으며, 각 학년별 전공 수업시간에 학과교수가 교수의 양해를 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의 설문응답을 수집하였다. 총 322명의 응답을 받았으며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과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위하여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 수강생들이 응답한 설문을 제외하여 최종 301부의 유효표본을 확보하였다.

측정항목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먼저 기업가적 태도와 기업가적 역량에 대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규교과목과 비교과프로그램에 마련된 창업교육에 참여한 학생과 창업교육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비교하기 위해 SPSS 23.0을 이용하여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을 실시하였다. 또한 기업가적 역량이 창업의지뿐만 아니라 취업의지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두 집단을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 간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Paternoster et al.(1998)이 제시한 Z-test를 실시하였다.

IV. 실증 분석

1. 응답자의 특성

조사응답자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97.7%)이 호텔관광경영학전공자이며, 기타 전공자(복수전공 등) 2.3%로 나타났다. 재학 학년을 보면 3학년(n=118)이 39.2%로 가장 많았으며, 2학년(n=111)이 36.9%, 4학년(n=43)이 14.3% 순이었으며, 1학년이 9.6%로 가장 낮은 분포를 나타냈다. 창업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38.5%가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61.5%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응답자의 특성

구분		빈도(n)	비율(%)	구분		빈도(n)	비율(%)
전공	호텔관광경영전공	294	97.7	학년	1학년	29	9.6
	기타(복수전공 등)	7	2.3		2학년	111	36.9
					3학년	118	39.2
					4학년	43	14.3
호텔관광분야 관심 여부	있다	116	38.5	창업교육 여부	창업교육 참여	157	52.2
	없다	185	61.5		미참여	144	47.8

2.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변수들의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Alpha를 이용하여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각 변수들에 대한 요인분석은 아이겐 값 1이상인 요인을 선택하였고, 직각회전인 배리맥스(Varimax) 방법을 사용하였다. 기업가적 태도는 총 9개 항목으로 측정하였으나 요인분석에서 공통성(communality)이 .4이하인 항목을 제외하고 내적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항목을 제외한 후 최종 7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기업가적 태도의 최종 항목에 대한 전체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Kaiser-Meyer-Olkin(KMO) 값이 .822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값이 950.960($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적합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 7개 항목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2개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 요인에 의한 전체 누적분산 설명력은 70.258%로 나타났다. Cronbach's α 값은 두 요인 모두 .8이상으로 나타나 높은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기업가적 역량은 총 25개의 항목으로 측정하였으며 요인분석 결과, 공통성이 .4이하이고 요인적재치의 타당성이 의심되는 항목을 제외하고 최종 22개 항목으로 요인을 추출하였다. KMO 값이 .917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값이 3411.311($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총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들 요인에 의한 전체 누적분산 설명력은 65.434%로 나타났다. 신뢰성 분석에서 Cronbach's α 값이 모두 .7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창업의지(분산 설명력=81.847%)와 취업의지(분산 설명력=70.969%)는 각각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신뢰도분석 결과 두 요인 모두 Cronbach's α 값이 .8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표 2>).

〈표 2〉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구성개념	요인	변수	요인적재값	Cronbach's α
기업가적 역량	인지적 역량(분석/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나는 복잡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	.702	.780
		아이디어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699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기법을 잘 알고 있으며 활용할 수 있다	.662	
		주어진 과제(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능숙하게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다	.588	
		나는 문제나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능숙하다	.435	
	사업화 역량	나는 사업계획서를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다	.832	.823
		나는 기업 설립이나 운영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다	.797	
		나는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다	.726	
		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호텔관광분야 재화와 서비스를 잘 찾아낼 수 있다	.588	
	기회포착 역량	나는 호텔관광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849	.830
		나는 호텔관광시장에서 새로운 사업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844	
		나는 실질적으로 고객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상품을 찾을 수 있다	.548	
		나는 호텔관광산업과 관련한 문제나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	.514	
		나는 다양한 정보를 분석, 활용해 필요한 최종 자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491	
	협상 및 전략 역량	나는 타인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능력이 있다	.727	.794
		나는 다른 사람보다 문제해결 및 개선방안을 잘 만들어 낸다	.684	
		나는 상대방을 고무시키고 격려하며 협력하는 능력이 있다	.655	
		나는 돌발적인 문제나 상황을 해결하는 것에 익숙하다	.488	
	대인관계 역량	나는 혼자보다 여러 사람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다	.768	.811
		주위 사람들과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746	
나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729		
나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좋은 팀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599		
KMO=.917, $\chi^2=3411.311$, df=231, $p<.001$, 총 분산 설명력=65.4348%				
창업의지		나는 졸업 후 가까운 미래에 창업을 할 것이다	.931	.925
		나는 창업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898	
		나는 창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깊게 해본 적이 있다	.899	
		내 진로의 목표는 기업가가 되는 것이다	.890	
KMO=.845, $\chi^2=943.685$, df=6, $p<.001$, 총 분산 설명력=81.847%				
취업의지		나는 내가 계획하는 기간 내 취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811	.863
		나는 내가 원하는 분야로 취업을 하는데 자신이 있다	.886	
		나는 취업을 위한 준비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856	
		나는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전문가로 경력을 쌓아갈 것이다	.815	
KMO=.816, $\chi^2=558.881$, df=6, $p<.001$, 총 분산 설명력=70.969%				

3. 가설 검증

1) 창업교육에 따른 기업가적 역량 차이 분석결과

기업가적 역량에 있어 창업교육을 받은 집단과 창업교과목 수강 및 비교과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은 비창업교육집단 간의 차이를 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요인에서만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사업화 역량의 경우 창업교육집단이 평균 3.188로 비창업교육집단의 평균값 2.939를 크게 상회하면서 차이검정에서 $t=3.039(p$

<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인지적 역량, 기회포착 역량, 협상전략 역량, 대인관계 역량은 전체적으로 창업교육집단이 비창업교육집단에 비해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창업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기업가적 역량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 1은 부분 채택되어 창업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기업가적 역량 중 사업화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창업교육집단과 비교육집단 간 기업가적 역량의 차이

기업가적 역량	창업교육집단 (n=157)		비창업교육집단 (n=144)		평균차이		t
	Mean	SD	Mean	SD	Mean	SD	
인지적 역량	3.363	.749	3.250	.897	.113	.085	1.323
사업화 역량	3.188	.745	2.939	.668	.249	.082	3.039*
기회포착 역량	3.619	.675	3.557	.620	.062	.075	.830
협상전략 역량	3.521	.694	3.424	.636	.097	.077	1.261
대인관계 역량	3.688	.704	3.608	.686	.080	.080	1.000

* $p<.05$

2) 창업교육에 따른 창업의지 차이 분석결과

창업의지에 대한 집단 간 비교분석 결과, 〈표 4〉와 같이 창업교육을 받은 집단이 받지 않은 집단보다 창업의지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별항목별 비교에서도 창업교육을 받은 집단이 모든 항목에서 비창업교육집단보다 창업의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항목에서 가장 큰 평균값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차이검증 결과 $t=4.483$ 로 유의수준 .01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깊게 해본 적이 있다’는 항목이 4개 항목 중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으며, 이 항목에서도 비창업교육집단 보다 평균차가 .530을 나타내는 등 차이검증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내 진로의 목표가 기업가가 되는 것이다(창업교육집단 $m=2.962$)’와 ‘나는 창업관련 지식을 습득하는데 시간투자하고 있다(창업교육집단 $m=2.917$)’는 항목이 대체로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지만 창업교육을 받지 않는 집단의 학생들보다는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창업교육을 받은 학생이 창업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에 비해 창업의지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 2는 채택되었으며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창업교육집단과 비교육집단간 창업의지의 차이

창업의지		창업교육집단 (n=157)		비창업교육집단 (n=144)		평균차이		t
		Mean	SD	Mean	SD	Mean	SD	
창업의지		3.022	1.139	2.491	1.067	.531	.127	4.164**
	창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깊게 해본 적이 있다	3.210	1.368	2.681	1.320	.530	.155	3.411*
	졸업 후 가까운 미래에 창업을 할 것이다	3.000	1.296	2.444	1.181	.556	.143	3.875**
	내 진로의 목표는 기업가가 되는 것이다	2.962	1.192	2.521	1.134	.441	.134	3.281*
	나는 창업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2.917	1.214	2.319	1.088	.598	.133	4.483**

* $p<.05$, ** $p<.01$

3) 창업교육에 따른 취업의지 차이 분석결과

창업교육은 모든 대학생들이 향후 창업을 해야 한다기보다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역량 뿐만 아니라 취업역량을 높여 학생들의 취업의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취업역량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차이검증결과, <표 5>에서 보는바와 같이 취업의지 역시 창업교육을 받은 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항목으로 살펴본 결과 4개 항목 중 3개 항목에서 창업교육집단과 비창업교육집단간의 취업의지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전문가로 경력을 쌓아갈 것이다'는 창업교육집단이 평균 3.815로 가장 높았으며, 비창업교육집단은 평균 3.583으로 창업교육집단보다 낮은 값을 보였다. 차이검증 결과에서도 $t=2.222$ 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취업자신감에 있어서 두 집단 간 평균차이가 .29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는데 창업교육을 받은 집단이 창업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취업 자신감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t=2.769, p<.05$). 반면, '내가 계획하는 기간 내 취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항목에서는 창업교육집단이 역시 비창업교육집단에 비해 높은 평균값(3.503)을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창업교육을 받은 학생이 창업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에 비해 취업의지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 3은 채택되어 창업교육이 창업의지만이 아니라 취업의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창업교육집단과 비교육집단간 취업의지의 차이

취업의지	창업교육집단 (n=157)		비창업교육집단 (n=144)		평균차이		t
	Mean	SD	Mean	SD	Mean	SD	
취업의지	3.593	.813	3.356	.736	.238	.089	2.654*
내가 계획하는 기간 내 취업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3.503	.991	3.347	.934	.156	.111	1.402
내가 원하는 분야로 취업을 하는데 자신이 있다	3.631	.901	3.340	.917	.290	.105	2.769*
취업을 위한 준비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3.427	.988	3.153	.855	.274	.106	2.577*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전문가로 경력을 쌓아갈 것이다	3.815	.926	3.583	.881	.232	.104	2.222*

* $p<.05$

4) 창업교육에 따른 기업가적 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분석

기업가적 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과 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창업교육집단과 비창업교육집단 간의 기업가적 역량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두 집단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조절효과를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Paternoster et al.(1998)이 제시한 Z-test를 사용하였다.

먼저, 기업가적 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창업교육집단은 인지적 역량($\beta=.281, p<.01$)과 사업화역량($\beta=.367, p<.01$), 협상전략역량($\beta=.237, p<.01$)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이들 역량이 향상될수록 학생들의 창업의지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비창업교육집단은 인지적 역량($\beta=.246, p<.01$)과 사업화 역량($\beta=.286, p<.01$)만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Z-test를 실시한 결과, 모든 기업가적 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두 집단 간 통계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4는 기각되었다(<표 6>).

<표 6> 기업가적 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및 집단 간 차이

기업가적 역량	창업교육집단 (n=157)			비창업교육집단 (n=144)			Z
	β	SE	t	β	SE	t	
(상수)	.147	.069	2.131*	-.176	.075	-2.333*	
인지적 역량	.281	.070	4.001**	.246	.073	3.374**	.348
사업화 역량	.367	.069	5.276**	.286	.076	3.736**	.785

기회포착 역량	.022	.067	.330	-.069	.075	-.921	.907
협상전략 역량	.237	.068	3.486**	.065	.074	.875	1.704
대인관계 역량	.056	.067	.832	.070	.076	.922	-.140
	$R^2 = .303$, adj. $R^2 = .280$, $F = 13.132$, $p = .000$			$R^2 = .150$, adj. $R^2 = .120$, $F = 4.885$, $p = .000$			

주: 종속변수 = 창업의지.

* $p < .05$, ** $p < .01$

5) 창업교육에 따른 기업가적 역량이 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 분석결과

〈표 7〉에 제시된 것처럼, 기업가적 역량이 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창업교육집단은 인지적 역량($\beta = .295$, $p < .01$)과 기회포착 역량($\beta = .313$, $p < .01$), 협상전략 역량($\beta = .241$, $p < .01$), 대인관계 역량($\beta = .232$, $p < .01$)이 학생들의 취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창업교육집단은 사업화 역량($\beta = .188$, $p < .01$)과 기회포착 역량($\beta = .547$, $p < .01$), 협상전략 역량($\beta = .298$, $p < .01$)이 취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적 역량이 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인지적 역량, 기회포착 역량, 대인관계 역량에서 두 집단 간 회귀계수가 유의수준 .05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여 가설5는 부분 채택되었다. 따라서 창업교육이 인지적 역량과 대인관계 역량을 향상시켜 취업의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회포착역량의 경우 창업교육을 받은 학생들보다 창업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회포착역량이 창업의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오히려 이러한 기회포착에 대한 역량이 취업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7〉 기업가적 역량이 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및 집단 간 차이

기업가적 역량	창업교육집단 (n=157)			비창업교육집단 (n=144)			Z
	β	SE	t	β	SE	t	
(상수)	.113	.071	1.590	-.132	.059	-2.225*	
인지적 역량	.295	.072	4.085**	.090	.057	1.573	2.214*
사업화 역량	.117	.071	1.639	.188	.060	3.114*	-.758
기회포착 역량	.313	.069	4.519**	.547	.059	9.199**	-2.570*
협상전략 역량	.241	.070	3.453**	.298	.059	5.070**	-.621
대인관계 역량	.232	.069	3.366**	.046	.060	.760	2.043*
	$R^2 = .310$, adj. $R^2 = .287$, $F = 13.557$, $p = .000$			$R^2 = .469$, adj. $R^2 = .450$, $F = 24.355$, $p = .000$			

주: 종속변수 = 취업의지.

* $p < .05$, ** $p < .01$

V. 토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호텔관광전공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역량이 창업교육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창업의지나 취업의지를 더 고취시키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즉, 창업교육 집단별 비교분석을 통해 기업가적 역량에 있어 창업교육을 받은 집단과 창업교과목 수강 및 비교과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은 비창업교육집단 간의 차이를 밝히고, 기업가적 역량이 창업의지와 취업의지에 집단 간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기업가적 역량의 다섯 개 요인을 비교했을 때, 평균값은 모두 창업교육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요인들 중 사업화 역량만이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1은 부분 채택되었다. 둘째, 두 집단 간 차이분석 결과 창업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집단이 보다 높은 창업의지를 보여주어 가설2가 채택되었고, 셋째, 취업의지 또한 창업교육집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하여 가설3이 채택되었다. 넷째, 가설4는 기각되어 기업가적 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두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업가적 역량이 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인지적 역량, 기회포착 역량, 대인관계 역량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가설5는

부분 채택되었다. 따라서 창업교육은 모든 대학생들이 향후 창업을 해야 한다기보다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역량 뿐만 아니라 취업역량을 높여 학생들의 취업의지까지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기업가적 역량에 있어서는 사업화 역량의 경우 창업교육집단이 비창업교육집단의 평균값을 크게 상회하면서 차이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인지적 역량, 기회포착 역량, 협상전략 역량, 대인관계 역량은 전체적으로 창업교육집단이 비창업교육집단에 비해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의지에 대한 집단 간 비교분석 결과, 창업교육을 받은 집단이 확실히 모든 항목에서 비창업교육집단보다 창업의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항목에서 가장 큰 평균값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대학생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들(Küttim et al., 2014; Sánchez, 2011, 2013; Maresch et al., 2016)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창업교육으로 인해 향상된 기업가적 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두 집단 간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으나 차이검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창업교육을 받은 집단은 인지적 역량, 사업화 역량, 협상전략 역량이 창업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비창업교육집단은 인지적 역량과 사업화 역량만이 창업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 먼저 기업가적 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기업가적 역량은 창업의지의 중요한 선행변수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김용태(2017)의 연구에서 인지역량, 대인관계역량, 사업화역량으로 구성된 기업가적 역량이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지지하였으며, 이인숙 등(2013)의 연구에서, 비록 단일요인으로 창업역량과 창업의지 관계를 확인하였지만, 기업가적 역량과 창업의지와 영향 관계를 입증한다는 차원에서는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는 창업교육의 조절효과에 대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가적 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는 선행연구에서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조절효과가 모든 요인들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할 때(김남현 · 최옥희, 2019),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기업가적 역량과 창업교육의 상호작용 이외에 다른 요인들의 영향이 함께 존재할 것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경적 특성, 개인의 창업성향, 창업에 대한 태도 등 여러 요인이 직접 혹은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이정원 등, 2013), 창업교육만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각 집단이 서로 다른 기업가적 역량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창업교육이 어느 정도 조절효과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창업교육의 조절효과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TPB모델에서의 창업교육의 조절효과(김남현 · 최옥희, 2019; Entrialgo & Iglesias, 2016)나 창업성향과 창업의지 관계에서의 조절효과(최옥희 등, 2017)를 확인하여 창업성향과 TPB모델의 일부 요인들이 창업교육으로 인해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본 연구를 통해 기업가적 역량에서도 창업교육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넷째, 기업가적 역량이 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창업교육집단의 경우 인지적, 기회포착, 협상전략, 대인관계 역량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비창업교육집단은 사업화, 기회포착, 협상전략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지적 역량, 기회포착 역량, 대인관계 역량은 창업교육에 의한 두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분석적,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나타내는 인지적 역량과 대인관계 역량은 창업교육집단은 취업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비창업교육은 취업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교육이 기업가적 역량과 취업의지 간의 관계에 조절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없으나 안태욱 · 강태원(2017), 최주철(2018)의 연구들에서 창업역량과 취업의지간의 간접적 영향관계와 관광분야 창업교육이 기업가정신을 매개로 취업역량을 높인다는 연구들처럼 기업가적 역량과 창업교육이 취업의지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호텔관광분야에서의 창업, 기업가정신, 기업가적 역량 연구들이 활발하지 않은 시점에서 호텔관광 기업가적 역량 척도를 도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문항을 토대로 호텔관광 기업가적 역량의 측정도구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실질적으로 호텔관광분야의 창업교육에 필요한 교육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관광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부분의 기업가적 역량과 창업의지의 관계, 창업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기업가적 역량을 개인의 창업 성향(자기효능감, 위험감수성 등) 혹은 계획행동이론(TPB모델)을 바탕으로 한 행동심리학적 특성(자기통제, 태도, 주관적 규범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으나(김남현 · 최옥희, 2019; 최옥희 외, 2017; Küttim et al., 2014; Sánchez, 2011), 본 연구는 기업가적 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뿐만 아니라 취업의지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여 기존의 창업의지 및 창업교육 연구의 확장에 기여하였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호텔관광분야 창업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가적 역량과 창업교육의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대학 내 호텔관광분야 창업 교육과정의 설계, 교과목 개발 및 운영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점점 거센 파도가 되어 대학의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많은 청년들이 취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가 급감한다는 것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새로운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성실함과 근면함을 바탕으로 선진 기술을 빠르게 모방하는 추격형 인재보다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현실에 구현함으로써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도전적 인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대학이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취업 중심의 역량을 길러내는 교육에서 자기주도성과 도전정신을 가지고 창업까지도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생들은 물론 많은 교육자들도 창업가 혹은 기업가는 특정 기질(창업성향)을 가진 사람들만이 도전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창업교육은 그것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만 집중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역량을 집중적으로 함양시킬 것인지에 대한 교육목표와 교육과정과 교과목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창업 희망자만을 위한 교육에 그치지 않고 창업역량과 취업역량을 모두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 기업가적 역량은 학습이 가능하고 교육을 통해 충분히 함양될 수 있는 능력이며 기업가적 역량이 창업의지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의 취업의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교육을 통해 보다 높은 기업가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고, 이는 곧 취업의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호텔관광분야 기업가적 역량인 인지적 역량, 사업화 역량, 기회포착역량, 협상전략 역량, 대인관계 역량을 중심으로 한 창업교육과정은 대학생들이 분석적이고 창의적이며 호텔관광사업, 호텔관광시장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호텔관광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졸업 후 단기간 내에 창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취업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게 하고, 취업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인생의 또 다른 진로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호텔관광분야는 SMEs의 역할이 관광생태계의 다양성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취업을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도 필요하지만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소규모 관광기업들이 활발하게 창업이 될 때 그 지역의 관광경쟁력은 높아진다. 하지만 현재 호텔관광분야 대학교육은 여전히 취업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다 장기적이고 광의의 관점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기업가적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는 창업교육을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기업가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기업가정신이나 창업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know-how)의 축적이 필요한데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창업에 대한 정보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창업자는 태어나는 것이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믿을 때 창업은 가르칠 수 있는 주제가 아닐 것이다. 창업의 성패가 기업가의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고, 과감성, 결단력, 배짱, 인내력과 같은 기질이나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믿으면 창업에 관해서 가르칠 것이 없을 것이고, 있다하더라도 가르칠 수 있는 정도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에 와서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교육을 통해 실제 경험을 확대시킴으로써 창업활동이 촉진될 수 있고,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기질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하겠지만, 특별한 지식과 전문적인 기술이 창업과정에서 필수적이기에 창업교육의 효용성에 대한 중요성은 높다.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호텔관광전공의 창업교육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내에서 선제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된 D대학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나 하나의 대학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향후 호텔관광분야 창업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대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호텔관광 기업가적 역량에 대한 측정도구 개발에 대해 보다 정교한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학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의지 및 취업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호텔관광분야의 대학 교육이 40여년이 지났으나 교육과정은 여전히 서비스인력 및 경영인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교육측면에서의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호텔관광분야의 산업적 및 사회학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재희·강진희(2013). 외식관련 대학의 창업지원 교육과정의 학교만족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관광연구*, 28(2), 201-224.
- 고혁진(2015). 창업교육에 대한 대학의 긍정적 변화와 과제.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편), *2015 창업교육 이슈페이퍼* (pp. 6-15), 서울: 교육부·한국연구재단·(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 교수신문(2020. 02. 27). 세종대 호텔관광대학, '배달의 민족'과 산학협력 체결. Retrieved February 27, 2021, from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48560>
- 교육부(2019). 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Retrieved June 22, 2020, from https://kess.kedi.re.kr/post/6689801?itemCode=04&menuId=m_02_04_02
- 구지은(2013). 커피전문점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관련 변인의 구조적 관계 분석.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기홍·김용태(2014). 창업 멘토링 교육 요인이 창업교육 만족도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9(5), 33-41.
- 김남현·최옥희(2019). Does entrepreneurial education encourage college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tourism and hospitality industry? *호텔관광연구*, 21(3), 18-35.
- 김용태(2015). 기업가정신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11월, 89-95.
- 김용태(2017). 창업교육, 기업가적 역량 및 태도가 대학생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2(2), 13-20.
- 김홍(2012). 대학생의 창업요인과 창업의지와의 관계 연구. *벤처창업연구*, 7(1), 263-271.
- 노인균·진양호·김진우(2016). 소상공인 외식창업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만족도와 창업 의도에 관한 연구. *호텔관광연구*, 18(5), 307-330.
-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2016). *대학창업교육실태*.
- 대학알리미(2018). 창업교육지원현황. Retrieved February 27, 2021, from <https://www.academyinfo.go.kr/search/search.do>
- 대학알리미(2020). 창업교육지원현황. Retrieved February 27, 2021, from <https://www.academyinfo.go.kr/search/search.do>
- 박동·나영선·김현수·이상준·김수진(2013). *기업가적 청년창업 촉진을 위한 융합형 직업교육훈련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박윤희(2003).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형 구안. *직업능력개발연구*, 6(1), 141-171.
- 반태현(2016). 회계전공 대학생의 교육성과와 전공몰입이 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70, 349-374.
- 배혜숙·허진·김영길(2012). 창업자 특성에 따른 외식창업 성공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호텔리조트연구*, 11(2), 377-393.
- 안태욱·강태원(2017). 창업가 역량이 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업가정신 매개효과 중심으로. *유통경영학회지*, 20(5), 81-89.
- 이상호(2016). 직업이해, 학교생활만족, 역량강화교육이 교육지원서비스와 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0(4), 167-177.
- 이인숙·김외순·나영아(2013). 청년사업을 위한 성장요인이 창업역량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19(4), 25-39.
- 이인숙·나영아(2014). 대학 내 외식창업 지원요인이 대학생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관광연구저널*, 28(7), 155-166.
- 이재석·이상명(2015).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 *벤처창업연구*, 10(3), 61-74.
- 이정원·이애주·김남현(2013). 관광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창업특성과 창업의도와 관계. *관광레저연구*, 25(2), 267-286.
- 전주현·임경수(2017). 기술창업교육캠프 참가 대학생의 창업역량 변화에 관한 연구. *공학교육연구*, 20(4), 67-72.
- 정태화(1996). 직업교육의 새로운 도전으로서 창업교육. *공업기술교육*, 77, 21-41.
- 조병주(1998). 창업교육: 교육과정 전개와 효과적 교수방법. *경영교육연구*, 2(2), 27-48.
- 창업진흥원(2016). *2016 대학창업지원 모델 길잡이*.
- 최명길·박은주(2012). 청년층의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문화관광 창업교육을 수강한 대학생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24(5), 201-220.
- 최옥희·박종희·김남현(2017). 대학생의 창업교육이 창업성향과 창업의도간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 *관광연구저널*, 31(1), 35-50.
- 최주철(2018). 대학생 관광분야 창업교육이 취업역량에 미치는 영향연구. *관광연구저널*, 32(1), 201-214.
- 최중석·성상현(2015). 예비 창업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창업성향 발달도 및 창업업종 선정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0(5), 1-13.
- 통계청(2020).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 한국노동연구원(2014).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고용영향평가 연구*.
- 헤럴드경제(2016. 09. 07). 동국대 경주캠퍼스, '대학특성화(CK)사업' 선정. Retrieved January 10, 2021, from

http://news.heraldcorp.com/village/view.php?ud=201609071021226309183_10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Ataei, P., Karimi, H., Ghadermarzi, H., & Norouzi, A.(2020). A conceptual model of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and their impacts on rural youth's intention to launch SMEs. *Journal of Rural Studies*, 75(April), 185-195.
- Autio, E., Keeley, R. H., Klofsten, M., & Ulfstedt, T.(1997). Entrepreneurial intent among students: testing an intent model in Asia, Scandinavia and USA. In P. D. Reynolds (Eds.),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1997: Proceedings of the 17th Annual Entrepreneurship Research Conference* (pp. 133-147), Wellesley, Mass: Babson College.
- Bird, B.(1995). Towards a theory of entrepreneurial competency. *Advances in Entrepreneurship, Firm Emergence and Growth*, 2(1), 51-72.
- Chang, D. S.(2000). Impact of venture creation management education on entrepreneurship of business and engineering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Industrial Studies*, 7(1), 129-139.
- Chandler, G. N., & Jansen, E.(1992). The founder's self-assessed competence and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7(3), 223-236.
- Crant, J.(1996).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4(3), 42-55.
- Daniel, A. D., Costa, R. A., Pita, M., & Costa, C.(2017). Tourism education: what about entrepreneurial skills?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Management*, 30(March), 65-72.
- Danneels, E.(2002). The dynamics of product innovation and firm competenci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3(12), 1095-1121.
- Diaz-Garcia, M. C., & Jimenez-Moreno, J.(2010).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role of gender. *The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6(3), 261-283.
- Entrialgo, M., & Iglesias, V.(2016). The moder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the antecede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2(4), 1209-1232.
- Galloway, L., & Brown, W.(2002). Entrepreneurship education at university: a driver in the creation of high growth firms? *Education and Training*, 44(8/9), 398-405.
- Gartner, W. D.(1989). Who is an entrepreneur? is the wrong ques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3(4), 47-68.
- Garavan, T. N., & O' Cinneide, B.(1994).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mes: a review and evaluation-part 1.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18(8), 3-12.
- Gibb, A.(2002). In pursuit of a new "enterprise" and "entrepreneurship" paradigm for learning: creative destruction, new values, new ways of doing things and new combinations of knowledge.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Reviews*, 4(3), 233-269.
-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Association (GERA)(2017).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6/2017 Global Report*. Retrieved June 22, 2020, from <http://www.gemconsortium.org/report/49812>
- Gurel, E., Altinay, L., & Daniele, R.(2010). Tourism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nals of Tourism Research*, 37(3), 646-669.
- Ibidunni, A. S., Ogundana, O. M., & Okonkwo, A.(2021).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and the performance of informal SMEs: the contingent role of business environment. *Journal of African Business*, DOI: 10.1080/15228916.2021.1874784.
- Krueger, N. F., Reilly, M. D., & Carsrud, A. L.(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6), 411-432.
- Küttim, M., Kallaste, M., Venesaar, U., & Kiis, A.(2014). Entrepreneurship education at university level and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10(January), 658-668.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 Liñán, F., Rodríguez-Cohard, J. C., & Rueda-Cantuche, J. M.(2011).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levels: a role for education.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7(2), 195-218.
- Man, T. W. Y., Lau, T., & Snape, E.(2008).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and the performanc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 investigation through a framework of competitiveness. *Journal of Small Business & Entrepreneurship*, 21(3), 257-276.
- Maresch, D., Harms, R., Kailer, N., & Wimmer-Wurm, B.(2016).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students in science and engineering versus business studies university programs. *Technological Forecasting*

- & *Social Change*, 104(March), 172-179.
- Mitchelmore, S., & Rowley, J.(2010).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a literature review and development agenda.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16(2), 92-111.
- Mitchelmore, S., & Rowley, J.(2013).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of women entrepreneurs pursuing business growth.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20(1), 125-142.
- Oosterbeek, H., van Praag, M., & Ijsselstein, A.(2010).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ship skills and motivation. *European Economic Review*, 54(3), 442-454.
- Paternoster, R., Brame, R., Mazerolle, P., & Piquero, A.(1998). Using the correct statistical test for equality of regression coefficients. *Criminology*, 36(4), 859-866.
- Pesha, A., Shavrovskaya, M., & Caha, Z.(2021).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evel of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among students in Russia and the Czech Republic. SHS Web of Conferences, 90, 02007.
- Sánchez, J. C.(2011). University training for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its impact on intention of venture creation.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7(2), 239-254.
- Sánchez, J. C.(2013). The impact of an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on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and inten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1(3), 447-465.
- Soliman, D. M.(2011). Entrepreneurial intention among tourism undergraduate students in Egypt. *Tourism Analysis*, 16(4), 483-491.
- Van Dongen, C. J.(1996). Quality of life and self-esteem in working and nonworking persons with mental illnes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32(6), 535-548.
- Vesper, K. H., & McMullan, W. E.(1988). Entrepreneurship: today courses, tomorrow degree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3(1), 7-13.
- von Graevenitz, G., Harhoff, D., & Weber, R.(2010).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76(1), 90-112.